

333개 특례 실행력 강화 본격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내년 실행 목표로 올해 안에 특례시책 마련·제도 정비 완료키로 시군 발전전략 사업도 계획에 반영... 김 지사 "알찬 성과 거두도록 역량 모아달라"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각종 특례 추진에 앞서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기 위해 각 특례별로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3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실·국·원장, 전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진행상황 보고회를 열고, 특례별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특례에 대한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보고회를 시작으로 매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토론하

는 등 각 특례별 추진상황을 도지사가 직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그동안 '2024년 제도적 정비 완료, 2025년 실행'을 목표로 권한위임과 권한양탈, 사업연계 조문 및 비사업 조문으로 특례를 분류하고 필수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특례 실행을 위한 준비를 벌여왔다.

특히 특례별 준비단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체 방향설정, 기본구상 과제, 기본계획수립 용역, 실시계획수립 용역 후 조례와 지침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먼저 지구·특구지정 관련 특례인 농

경 신아관광 지구 지정 등 14건은 다른 특례에 우선해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14건의 지구·특구 특례는 3년 한시 조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2차 개정 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년 한시 조항 특례인 출입국관리법, 환경영향평가 특례는 지구, 특구 등 용도 지역이 적용되는 만큼 용도 지정 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4개 용도지역 특례와 한시 조항 실행계획을 동시에 추진할 구상이다.

또한, 재정 분석결과 국가예산 반영 대상 특례는 17건 1조9,615억원의 규모로 분석됐으며, 해당 특례는 국가예산 사업화 및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

응하고 국가예산 대상 사업 지속 확대를 위해 향후 특례 발굴 및 법안개정 시 반영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생명산업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지구,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지구, 야간관광산업, 수소화단지 지정 등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10일간 찾아가는 도민보고회 각 시군에서 발전전략으로 제시한 핵심사업은 상반기 시군 자체 용역을 거쳐 하반기에 도 계획 및 용역에 포함하고 공동으로 중앙부처 협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그간 특례실행 본격추진을 위해 특례별 자체방향설정과 계획수립을 실시했으며, 9개 과제에 대해 기본구상 연구과제 착수한 상태다.

또한, 특례 실행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구상 과제 풀용역비 지원, 방향설정 전문가 세미나(24회), 자치입법컨설팅, 직원역량 강화추진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추진을 위해 1회 추경시 10건(12억원 정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특례실행 준비 자체평가 및 우수분야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특례실행 과제를 2024년 실구장 도정성과 계약과제에 반영하고 특례실행 목표 관리제를 적용해 직무성과평가 목적, 표창, 국외연수, 특별승진, 시군포상, 특별조정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도 계획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특별법에 담긴 각종 특례는 우리 전북의 산업을 재편하는 등 새롭게 부흥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도정을 혁신하고 체질을 바꾸는 방향으로 특례를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례실행 준비에 역량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새로운미래 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재영입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새로운미래 제공)

새로운미래, 당명·당색 확정

약칭 '새미래' 로 기호 따라 변형 가능... 당색은 남색에서 한하게 4차 인재영입 발표... 이상이 제주대 교수, 의료·복지 정책 담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새로운미래'가 당명(黨名)과 당색(黨色)을 확정지었다. 지난 23일 인터넷 언론사 데일리안에 따르면,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5차 책임위원회에서 "당명은 현행 새로운미래를 그대로 쓰고, 약칭은 '새미래'를 병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명은 자유롭게 변형 사용도 용이하게 했다. 이 공동대표는 "아이덴티티·지역·후보자들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 '진짜 민주당 새로운 미래', '영등포구의 새로운미래'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색은 26일 공개된다. 기존 당색인 남색에서 좀 더 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공동대표는 "현재 당색이 도시적이기는 하나 선거 캠페인용으로 쓰기 어렵다"며 "최적하다" "선거 계절에 안 맞는다" 등 지적을 감안해 더 짙고 화사한 색깔로 바꾼다"고 설명했다.

책임위원회에 함께 참석한 조기숙 공천관리위원장은 새로운미래 후보자 공천기준 및 윤리판정 기준을 내놨다. 이 공동대표는 "현재 당색이 신념 △미래지향적인 후보 △혁신적인 후보 △개인 비리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사용 금지 △당 기여도 및 헌신도, 당선 경쟁력 및 도덕성 등이다. /특별취재반

조 위원장은 "도덕적이고 유능한 정당"을 지향하는 창당 취지에 맞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요구할 것"이라며 "부패 이력, 성범죄 및 성폭력,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브리핑 후 '4차 영입인재' 발표도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는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소개했다. 의료 및 복지 관련 정책을 주로 담당할 예정이다.

이상이 교수는 "지금 대한민국은 불행하다"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하고 세계 최악의 초저출산으로 인구 위기가 겹쳐있다. 경제 성장은 벽에 부딪혔고 경제 복지 체제는 지속가능성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양극적 착취적인 정치 질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정치가 포용적이어야 경제도 복지도 민생도 포용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진실한 진실을 거역한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정치가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다당제 민주주의는 선택지를 넓혀줌으로써 정치 포용성 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미래는 △대한민국 추가 저평가 문제 개선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철회 촉구 등을 내세웠다. /특별취재반

푸드테크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확장 합심

전북자치도, 서울 푸드테크 밸리에 스타트업 입주 등 지원 롯데, 도내 농생명 기관들과 공동 연구 등 상생 활동 전개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롯데중앙연구소(소장 이경현)는 식물성 대체식품분야의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푸드테크의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협업을 추진한다.

롯데중앙연구소는 지난 1983년 설립된 롯데그룹의 종합 식품 연구소로, 롯데푸드, 롯데칠성음료, 롯데GRS 등 롯데 식품사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개선, 패키징 개발, 식품 안전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를 통해 연구소는 2023년 제2회 푸드테크 함께혁신 포럼, '대체식품(SF) 네트워킹 데이 in 판교'에 참여하는 등 전북자치도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협력 방안에서는 롯데중앙연구소가 얼라이언스 회원사 대상으로 연구소 내 공유오피스인 '푸드테크 밸리'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푸드테크, △식물성 대체식품, △차세대 식품 가공 기술을 주제로, 전북자치도 추천과 연구소 자체 기준을 거쳐 입주와 함께 전문 연구원 멘토링, 롯데 식품 계열사 연계 및 롯데벤처 투자 검토 기회 제공, 연구소 내 시설 활용 협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연구소에 입주한 수도권 등 타 지역 기업에 얼라이언스의 대체식품(SF) 그룹 가입을 제안해 오픈이노베이션의 생태계를 넓혀준다.

이를 통해 푸드테크의 소비자와 생산자 기업, 농생명 공공기관 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전북의 스타트업은 소비자의 트렌드 대응과 기술협력, 기업활동에 대한 노하우를 높여갈 수 있다.

한편, 롯데중앙연구소는 작년 9월 식품클러스터진흥원과 국제협력 프로젝트 '글로벌 푸드슈어' 참여, 한국식품연구원과 '미래식품 소재와 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등 전북 소재 농생명 혁신기관과의 상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생명산업수도로서 지역과 산업의 경계를 넘어 대한민국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롯데와의 협력이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중앙연구소 관계자는 "향후 전북자치도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구축되면 국내 유수의 혁신기관, 스타트업 기업들과 다양한 협력관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지난 23일 전북자치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추진상황 보고회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실·국·원장, 전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특례별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특례에 대한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한 논의하고 있다.

민주 전주를 4인 전략경선, 상위 2명 결선... 100% 국민경선

양경숙·이덕춘·이성운·최형재 등... 김운태 불출마

민주 공관위, 군산 '신영대·김의겸' 경선 확정지어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를 지역구 공천 여부를 5인 전략경선으로 치르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주를 경선에 양경숙, 이덕춘, 이성운, 최형재 등 4인 전략경선을 치른다. 김운태 예비

후보는 전략경선 명단에 포함됐으나, 불출마를 선언했다.

전주를 전략경선에 나선 이성운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됐다.

5인의 후보들이 1차 경선을 치른 뒤

상위 2명이 결선투표로 진행되며, 경선방식은 100% 국민경선이다.

이번 전략공천위의 발표로 고종운·박진만·성치두 예비후보들은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앞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 군산을 지역구로 둔 신영대 의원과 비례대표인 김의겸 의원이 군산 지역 경선을 치른다. /특별취재반

"국민적 공감대 잃은 의료 파업에 우려"

박용근 자치도의원

"국립의원 건립

지역의사제 도입을"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한 반발로 인해 전국적으로 전공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의료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근 의원(정수)이 도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혼란,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잃은 의사집단의 파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국립의과학전문대학원의 조속한 건립 등 대안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박용근 의원은 "현재 전북자치도는 비상진료 대책상황실을 마련해 의료현장의 혼란과 공백을 대비하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도민들이 겪을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의사집단의 불만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족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국민 대다수는 고령사회로 인한 의료수요의 증가와 의료 수도권 쏠림 현상의 완화, 고사직전에 처한 자생의료의 필수인력 확충 등을 위해 현 정부의 의사 증원 방침에 절대적 지지와 찬성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운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제시한 것처럼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수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어 의대 쏠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의료부무할 의사 양성을 위해 국립의원 설립과 지역 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재훈 기자

"금융 지원 늘리고, 경영 부담 줄이고, 영업 매출 살릴 것"

민주 김성주 의원, 총선 소상공인 관련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지난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22대 총선 민생 공약으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김성주 의원은 △금융 지원을 늘리고, △경영 부담을 줄이고, △영업 매출을 살리며, △실내파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을 발표하고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김성주 의원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코로나 19 대응 상황유예 연장, 에너지 비용 부담 문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필요성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김성주 의원은 먼저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 공약으로 △고금리 부담 완화



를 위한 정책자금 2배이상 확대, △저금리 대환대출 및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 등 금융정책 확대, △장기 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 도입을 제시했다.

경영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 임대료 지원,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설을 제시했다.

영업 매출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역회화 예산 확대 및 국고지원 상시화, △온누리상품권 사용자 및 가맹점 확대를 약속했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

할 수 있도록 △폐업지원금을 최대 2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를 세부공약으로 발표했다.

앞서 김성주 의원은 '어르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민주당의 약속'을 통해 △오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모든 경로당에서 어르신 주5일 점심 제공, △방문 재택 진료 확대와 어르신 주치의제 도입 등을 발표했는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도 했다.

이울러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 저출생 공약인 △자녀 수에 따라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대주택을 제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국가 무한책임 보장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 육아 휴직 제도 강화도 함께 소개했다. /특별취재반

"미래의 국도비 확보 경쟁 제한"

민주 유성엽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유성엽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정읍시,고창군 국도비 확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두 후보가 충분히 입장들을 밝힌 만큼 이제 판단은 시민들에게 맡기고, 앞으로 더 많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경쟁을 제안했다.

유 예비후보는 "정읍시, 고창군의 발



언을 위해 앞으로 국가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놓고 경쟁하자"고 밝혔다.

군 홈페이지에公示된 내용을 분석, 정리한 것으로, 선관위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 작성, 배포한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상대측의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일절 대응하지 않을 것이며,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조성에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유 예비후보의 이번 제안이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별취재반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침